스카이데일리
SkyeDaily
제1800호
skyedaily.com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단기 4359년 음력 2월 9일 庚子
구독·배달문의 02-522-6595



불장에 순이익 10조 돈 쓸어 담은 증권사

61개사, 지난해 순이익 39% ↑
수수료 수익 28% 치솟아 16조
운용 사업 수익 골고루 성장세
자산총액 25% 뛰어 944조 달해

지난해 국내 증권회사들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국내 증시 호황과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수탁수수료가 급증했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대출관련손익 증가, IB와 자산관리 부문의 개선까지 겹치면서 순이익이 1년 새 40% 가까이 뛰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회사 61곳의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 원으로 전년 6조9441억 대비 2조 7014억 원, 38.9% 증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7.9%에서 10.0%로 2.1%p 올랐다. 최근 3개 연도 연속 순이익이 늘었다.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배경은 수수료 수익 확대다. 지난해 증권회사 수수료수익은 16조6159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6642억 원, 28.3% 늘었다. 이 가운데 수탁수수료는 8조6021억 원으로 37.3% 급증했다.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4669조 원에서 6348조2000억 원으로 늘었고, 해외주식 결제금액도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IB부문 수수료는 4조864억 원으로 9.2%,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는 1조6333억 원으로 26.4% 증가했다.

기타자산손익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기타자산손익은 5조1206억 원으로 72.2% 늘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손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등 대출관련손익도 4조2230억 원으로 12.3% 증가했다. 판매관리비가 14조36억 원으로 14.6% 늘었지만, 판관비 차감 전 영업이익 증가폭이 이를 웃돌았다.

재무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말 증권회사 자산총액은 943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8조7000억 원, 25.0%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841조5000억 원으로 26.8% 늘었고, 자기자본은 102조4000억 원으로 11.7% 증가했다. 현금과 예치금, 증권 보유액, 대출채권이 고르게 늘어난 반면 파생상품은 소폭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는 규제 수준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증권회사 평균 순자본비율은 915.1%로 전년 말보다 113.9%p 상승했고,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693.7%로 37.3%p 높아졌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나프타 대란… 83% 중동 의존 중기 '비명'



日 소장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 공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 의사의 유묵 진본인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을 배경으로 외고손녀인 이서현 씨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이 소장 중인 이 유묵은 안 의사가 1910년 3월 뤼순 옥중에서 남긴 것으로 국가보훈부가 대여 협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4월 말까지 특별 전시한다. 이종원 기자

중동 전쟁에 공급망 직격탄
대기업보다 위기에 더 취약
수출 차질·대금결제도 펑크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원자재 공급망과 수출 구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은 나프타(납사)의 중동 의존도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82.8%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전체 기업 평균 약 60%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더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 원재료 수급 차질은 물론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나프타 수급 차질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 재고가 소진돼 판매가 어려운 상황을 안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5.4%로 전체 기업 평균 2.9%보다 높았다. 중동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만3859개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이다.

문제는 전쟁 장기화로 현지 거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 현지 파트너사의 발주 조정이나 거래 취소, 대금 결제 지연, 선적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환율 변동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크다. 나프타와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플라스틱·화학 및 금속 가공업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의 이중 부담에 직면해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을 넘어 생활 소비 영역까지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전쟁 추경' 지방·취약층 더 지원

與, 25조 규모 31일 국회 제출
고환율·고물가에 선제 대응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제정세, 민생경제 등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중동 상황 확대와 장기화로 경제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과 경제침체 우려도 커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집행이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가, 물가, 환율의 영향으로 민생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는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추경의 중점은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촘촘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했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 제출, 내달 2일 시정연설, 같은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알림

뉴 미디어 시대 선도할 혁신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인원
AI 활용 전담 기자	○명
데이터 저널리즘 전담 기자	○명
뉴 패러다임 기업PR 매니저(광고협찬 영업 겸임)	○명

○ 지원 자격
· 기자 : 신입 및 경력(1년 차 이상)
· 기업PR 매니저 : 신입 및 경력(3년 차 이상)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1차 면접 → 2차 면접
○ 근무 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협의)
· 근무지 : 본사(서울)
· 접수방법 : 이메일(skyedaily@skyedaily.com)
· 문의 : (02)522-6595 경영지원실

SkyeDaily

